

국가화재분류체계 개편방안

화재보험사의 국가화재분류체계 활용성을 중심으로



글 | 한상대
소방방재청 화재조사팀장



우리는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화재 현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은 통계로부터 나와야 하고 이는 통계가 현실을 수치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1. 머리말

지식정보화 시대로 산업경제 및 생활양식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는 과거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5년 한해 동안에도 32,34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2,342명, 171,374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고통, 치료비 등 간접적 요인까지 포함한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화재 현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은 통계로부터 나와야 하고 이는 통계가 현실을 수치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굳이 “통계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도 상이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과학(Statistics : The only science that enables different experts using the same figures to draw different conclusions.)”이라고 말한 Evan Esar의 유명한 경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통계와 통계해석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화재통계는 분석 자료로서 가치가 미흡한 일면이 있다. 현행의 화재분류체계는 화재원인, 장소 등 「화재조사 항목」이 서술적·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가 미약하고, 화재조사 과정의 정밀성 부족으로 화재예방, 진압대책 수립에 필요한 방화정보, 연소확대 요인, 소방·방화시설 사용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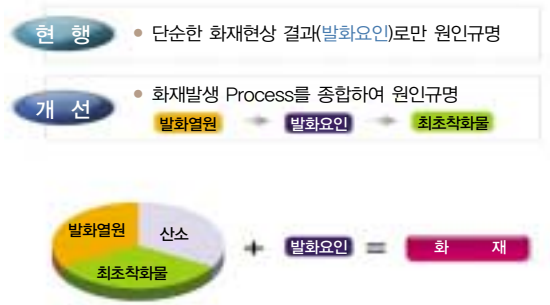
난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적용해야 할 때라고 본다. 화재조사나 화재분석 역시 화재조사관이 현장을 단순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의 국가화재분류체계 개선 목적은 과학적 화재조사와 체계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소방안전정책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도를 높여 안전이 보장된 안전한국(Safe Korea)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화재통계의 분석적 가치를 높여 정책적 설득력을 높이고 정책적 환류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2. 주요 개편방향

가. 화재원인 규명방법의 재정립

지금까지는 화재원인을 단순한 화재현상의 결과인 발화요인만으로 설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화재라는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발



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의 관점에서 조사한다. 화재원인의 규명방법이 정밀성과 입체적 분석력을 동시에 충족하는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나. 화재원인의 분류

화재원인 분류는 전기, 유류, 가스, 아궁이, 담배 등의 현행 11종류에서 발화열원 26종류, 발화요인 42종류, 최초착화물 57종류를 조사하여 화재원인 분류의 정밀성을 최대한 높였으며, 이는 곧 고품질의 화재예방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통계자료가 될 것이다.

화재조사에서 화재원인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지만 그 중에서도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 이후에는 유사사례를 방지하자는 것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정밀한 화재원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에 상응한 예방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화재분류체계가 정착되는 시점이 되면 국민들은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의 수혜자가 되어 안전이 확보된 복지국가에서 살 것이고, 화재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보험회사는 화재가 줄어들어 따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모두가 국가화재분류체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다. 화재장소의 분류

화재발생 장소도 종전의 26종류(공연장, 음식점, 호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588종류(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기숙사, 학교, 도서관, 학원, 상가 등)로 분류하여 화재발생 장소에 따른 구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주 용도에 따른 “부속용도”와 화재발생 장소의 세부지점인 “발화지점”까지 조사한다. 화재장소의 정밀 분류는 자료의 충실함으로 인하여 원하는 대상에 대한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예방(Customized Prevention)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장소의 분류항목은 아래와 같다.

- 대분류(15종) : 주거시설, 교육시설, 판매·업무시설, 집합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 중분류(50종) : 단독주택, 공동주택, 학교, 판매, 공공기관, 일반업무 등
- 소분류(354종) : 단독주택, 아파트, 초등학교, 연구소, 백화점, 지하상가 등
- 부속용도(35종) : 주용도에 부속하여 설치된 용도
 - 일반생활 : 세탁소, 식당, 주차장, 일반잡화 등
 - 업무 : 작업동, 물품저장, 회의장, 사무동 등
 - 후생복지 : 전시장, 기숙사, 병원, 약국, 운동시설 등
- 발화지점(134개소) : 주용도 또는 부속용도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 지점
 - 구조 : 굴뚝, 기둥, 내벽, 외벽, 지붕, 창문 등
 - 생활공간 : 강당, 교실, 객실, 거실, 서재, 주방 등
 - 출구 : 로비, 복도, 옥내계단, 옥외계단, 출입구 등

특히,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2만 개소 특수건물의 화재시에는 즉시 협회에 통보될 수 있도록 장소 분류를 공유하여 화재현장 조사시 특별관리 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그동안 매년 별도로 소방관서를 방문하여 조사하던 사례는 불필요할 것으로 본다.

라.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분쟁에 대비

이번 국가화재분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화재원인 조사시 화재발생과 관련된 기기나 제품 등에 관한 조사가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져 발화관련 기기에 대해서 제품명, 제품번호, 제조일, 동력원에 대한 조사 및 자료관리가 이루어진다. 발화관련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래의 소방행정을 크게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① 계절용 기기	에어컨, 선풍기, 냉난방기, 전기히터·스토브 등
② 생활기기	헤어드라이어, 전자모기향, 소독기, 다리미 등
③ 주방기기	커피포트, 약탕기, 전기밥솥, 핫플레이트 등
④ 영상·음향기기	텔레비전, 비디오, 음향기기, 셋톱박스 등
⑤ 배선·배선기구	전력공급용 전선, 옥내 인입배선, 옥내배선용 등
⑥ 전기설비	교압개폐기, 저압개폐기, 발전기, 변압기 등

■ [발화관련 기기 분류(예시)]

마. 「방화」 정보수집 체계의 정립

현재 방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방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방화의 명백한 정도에 따라 「방화」와 「방화의심」으로 구분하였고, 「언제」, 「어디서」, 「무슨 형태(방화도구)로」, 「무슨 목적(방화동기)으로」 방화를 일으켰는지 등을 조사하여 방화수사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방화 대책 수립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을 노리는 범죄성 방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방화의 최소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바. 연소확대 과정 분석

연소가 확대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초착화물, 연소확대물은 물론이고 화재인지 및 신고지연, 현장 불법주차, 교통 혼잡, 건물구조의 특수성 등 연소가 확대된 요인까지 분석하여 예방자료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의 내용이 충실해진다.

① 가구	침대· 매트리스, 테이블· 의자, 옷장 등
② 침구· 직물류	이불, 카펫, 의류, 행주, 커튼, 기타
③ 합성수지	플라스틱, 합성고무, 스티로폼, 아크릴
④ 가연성 가스	천연가스,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등

■ [최초착화물(예시)]

○ 최초착화물은 발화열원에 의해 최초로 불이 붙은 가연물이며, 발화 후 연소 확대에 기여한 가연물은 연소확대물이다.

사. 소방방화시설(22종)의 유효성 조사 신설

화재발생 장소 및 발화지점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방화시설 22종에 대하여 설치 여부, 설치된 시설의 작동 여부 그리고 미작동 사유 등을 조사하며, 이외에도 소방관서의 출동, 진압 소요시간 및 동원소방력 등 다양한 화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나타난 문제점은 바로 환류·수정하는 선진국형 행정체제를 목표로 한다.

아. 화재통계시스템 구축

앞으로 개편내용은 전산화하여, 화재건수, 원인별, 장소별 등 화재동향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국가화재분석전산시스템(NFDS)」을 2007년 중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유관기관, 각 행정기관과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화재와 관련하며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방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화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테마별 화재분석(예시)]

3. 맺음말

이번 「국가화재분류체계」개편으로,
 첫째, 정확한 화재통계에 기초한 소방정책 수립으로
 경험행정에서 과학적인 현장행정으로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둘째, 한국화재보험협회를 비롯하여 각 보험사 등에
 서도 화재정보 공유가 가능함에 따라, 보험상

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범국가적 민·관 협동체제를 이루게 된다.

셋째, 일반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오늘의 화재, 중
 요화재, 주요 항목별(시간대, 요일), 테마별
 화재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국민의 화재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개편(안)은 올 하반기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로써 화재
 Data 관리, 분석, 정보에 대한 「선진국형 화재정보 분
 석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감소
 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